

## 발행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발행인

김경애

## 발행일

2007년 6월 30일

## 실무위원회

문유경(위원장)W김은경W신선미  
안상수W양인숙W정진주W홍승아

## 편집인

문유경

## 기획 및 편집

강민정W정혜선

## 디자인

디자인이즈 02-2122-2000  
www.designis.kr

## 출력

우리컴 02-2217-0510

젠더리뷰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 기관이나 본원의 공식 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 CONTENTS

002 편집자의 글 | 문유경

## 기획 특집

### IMF 외환위기, 그 10년의 경험

004 여성의 삶의 과정과 남녀관계의 변화 | 손승영

014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 김영옥

024 사회복지제도의 변화와 여성 | 박영란

033 현장에서 본 결혼문화의 변화 | 전선애

## 이슈 브리프

040 장애여성의 교육기회, 현황과 과제 | 정해숙

046 여성운동 20년의 성과와 과제 | 김경희

051 동성 파트너십 제도화의 해외동향 | 최현숙

055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여성 이슈 | 김미주

## 통계 분석

060 여자 담임 선생님, 남자 교장 선생님 | 전기택

064 농촌남성 외국에서 아내 찾는다! | 주재선

070 여성 통근자 3명 중 1명은 '뚜벅이' | 전기택

## 동향 정보

076 주요여성정책

088 지역동향 | 부산광역시W울산광역시W경상남도W충청남도W제주특별자치도

097 국제동향

## 연구 노트

112 다민족·다문화사회를 향한 길 위에 선 한국사회를 진단한다 | 김이선

115 성 인지 예산 분석 및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 조선주

118 성 인지적 관점의 투표를 위한 여성정책 평가를 개발 | 김원홍

121 GSIS, 한국 성 인지 통계의 모든 것 | 전기택

124 평등부모역할 수행을 위한 부모휴가정책 | 홍승아

127 교직의 여성화와 남교사 할당제 논의의 타당성 | 김남희

## 주요 통계

130 혼인·이혼

136 정치분야의 여성대표성

142 여성의 교통수단 이용

147 여성교원

10년 전인 1997년 겨울 한국사회를 진도(震度) 10으로 강타한 'IMF' 아시아 외환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첫 경험으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커다란 고통을 주었다. 이후 2001년 8월 IMF 차입금을 전액상환하면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외환위기를 벗어났지만 그 여파는 아직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등 거시경제부문은 물론이고, 개인의 가치관, 가족관계 등 일상생활에까지 다층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과연 불가피하였는가, 과잉처방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는가 하는 찬반론도 중요하지만 이 지면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여성을 둘러싼 지형이 어떻게 바뀌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젠더관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손승영 교수는 IMF 이후 단기적으로는 가구의 갈등과 해체가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 정치적 측면이나 제도적 측면에서의 변화속도에 비해 개인의 가치관 변화나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더 빨리 진행되어 한국 사회와 가족에 전환을 가져오는 원인동력이 되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영옥 선임연구위원은 'IMF 외환위기가 없었더라면'이라는 가정과 현실의 격차를 통해, 여성노동시장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추정하여 보여주고 있다. 박영란 교수는 IMF 외환위기가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는 등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의 확산에 영향을 주었지만, 이러한 사회복지의 확산이 늘어나는 빈곤 여성들에게 효과적으로 지원되고있는가를 점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선에 소장은 인류지대사인 결혼문화의 변화를 현장경험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일상생활에서의 젠더관계 변화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는 거시적인 경제현상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자본의 세계화에 대한 혹독한 수업료이다. 세계화의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있으며 어느 국가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IMF 외환위기 이후 세계화는 여성들에게 커다란 위협이지만 동시에 우리사회 변화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한편 기회일 수 있다.